

# 청소년 모래놀이치료에서의 율타리 상징: 분석심리학적 문헌고찰 및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문주연\* · 이지연\*\* · 한유진\*\*\*

## Ⅰ 알기 쉬운 개요

청소년기는 복잡한 감정 변화와 함께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혼란을 겪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을 돕기 위한 심리치료 기법 중 하나인 모래놀이치료는 언어 없이도 자신의 내면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돕는 모래놀이치료에 주목하여, 모래 상자에 자주 등장하는 '율타리'의 심리적 의미를 탐색했습니다. 율타리는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구조물이 아니라, 청소년의 내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우리는 실제 모래놀이치료에 참여한 8명의 청소년이 만든 12개의 모래 상자를 분석한 결과, 율타리는 공간을 나누는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율타리는 혼란스러운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기 보호), 내면의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자아 경계 확립)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감정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마음속 질서를 세우는(감정 통제)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율타리 상징은 청소년이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고 스스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전문가들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수로, mindstand@naver.com

\*\*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수로, leejudy43@mju.ac.kr

\*\*\*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교신저자, yjhan@mju.ac.kr

투 고 일 / 2025. 6. 9.  
심 사 일 / 2025. 8. 4.  
심사완료일 / 2025. 8. 14.

## Ⅰ 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율타리' 상징의 심리적 의미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이 상징이 나타나는 치료 회기 내에서 자아 정체성 형성과 감정 조절, 자기(Self) 통합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심리적 급변을 겪는 과도기적 단계로, 언어적 표현의 한계와 불안정한 자아 경계 형성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상징을 통한 비언어적 표현은 내면세계를 탐색하는 효과적인 매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주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엄격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 34편의 연구를 선정하고, 실제 모래놀이치료를 경험한 청소년 8명의 모래상자 12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모래상자 속 율타리는 (1) 자아의 경계 확립, (2) 자기 보호와 가치 부여, (3) 감정 통제와 의례화된 공간화라는 세 가지 주요 상징 범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석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자아와 무의식 간의 조절과 통합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율타리는 청소년의 개성화 과정에서 혼란스러운 내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신성한 자기(Self) 영역을 보존하는 성소(sanctuary)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감정적 혼란을 공간적으로 구조화하여 심리적 질서를 회복하는 의례적 기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분석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율타리 상징의 심층적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기의 발달과제와 상징 표현 간의 관계를 밝히고, 모래놀이치료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확장하였다. 이는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청소년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청소년, 모래놀이치료, 분석심리학, 상징, 율타리

## I. 서 론

청소년기는 Erikson(1968)이 제시한 ‘자아 정체성 대 역할 혼란’이라는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해당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역할을 탐색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학업 성취에 대한 압박, 또래와의 경쟁 및 소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정체성 혼란 등 다양한 발달적 위기는 청소년기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오진숙, 김한중, 하요상, 2019; 최지원, 박윤미, 2021).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자신의 정서 또는 경험을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치료 장면에서도 강하게 방어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내면을 표현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나 매체가 필요하다(이여름, 손춘옥, 2017).

그 중 모래놀이치료는 내담자가 모래 상자 안에 자유롭게 소품을 배치하며 자신의 내면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비언어적 심리치료 기법으로 Lowenfeld의 세계기법(World technique)에 Jung의 분석심리학을 적용하여 Dora Kalff가 체계화한 심리치료 방법이다(Boik & Goodwin, 2000). Kalff(2003)는 모래놀이치료를 ‘자유롭고 보호받는 공간’으로 정의하며, 이 공간에서 내담자는 안전하게 자신의 심리적 갈등이나 무의식적 내용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분석심리학의 이론에 기반한 모래놀이치료는 자아와 무의식 간의 상징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상징을 통해 억압된 감정이나 트라우마를 안전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래놀이치료는 모래 상자라는 안전한 공간을 통해 언어적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세계를 자연스럽게 투사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김인옥, 이경하, 2012).

모래놀이치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징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이나 생각을 안전하게 드러내는 데 효과적인 요소로 작용한다(Green & Connolly, 2009). 상징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감추어진 무의식의 어떤 것으로, 장미경(2017)은 이러한 무의식을 상징으로서 안전하게 경험하게 되면 인간 본래의 존엄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상징은 인간의 무의식적 내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매개로서, 특히 분석심리학에서 핵심적인 치료 개념으로 간주된다. Jung(1964)에 따르면, 상징은 의식적으로 인식되지 않은 무의식의 내용을 드러내는 매개이며, 내면의 심리적 진실을 외부 세계의 이미지나 형태로 나타내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상징은 단순한 표상이 아니라, 무의식과 의식 간의 다리를 놓아주는 심리적 도구로서, 억압된 감정이나 트라우마, 갈등을 통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상징은 무의식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그것과 의식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창구이므로, 치료적 과정에서 상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작업은 내담자의 자아 강화와 통합적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장미경, 2017). 이러한 상징의 치료적 기능은 모래놀이치료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상징은 내담자에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며, 내면의 감정이나 갈등을 투사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기반으로써 표현 언어가 미숙하거나 정서적 혼란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특히 유용한 심리적 소통 채널을 제공한다.

상징은 청소년의 자아 형성과 정체성 탐색의 중요한 과정에서 심리적 중재물로 작용할 수 있다. Erikson(1968)은 자아 정체성의 발달 과정에서 상징이 청소년이 내면의 감정을 외부화하고 사회적 정체성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상상적이고 의미 있는 장치라고 언급하였다. Hillman(1975) 또한 상징은 자아가 아닌 영혼(psyché)의 언어로서 작용하며, 치료적 관계 속에서 상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내담자의 내면세계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모래놀이치료에서 상징은 단순한 심상 이미지가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 발달 및 정서 통합을 촉진하는 주요 심리 역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한 상징 중 울타리는 '경계'를 대표하는 핵심 상징으로, 보호와 분리를 동시에 의미한다. 내부와 외부를 구분 짓는 울타리의 구조는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제인 자아 정체성 확립과 심리적 독립 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이승출, 최영진, 2021). 청소년들은 자아의 경계를 탐색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래 상자 안에 울타리를 배치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자신만의 공간을 심리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모래놀이치료 맥락에서 울타리는 특별한 심리적 의미를 지니는데, Green과 Connolly(2009)는 모래놀이치료에서 울타리의 사용이 자아의 취약성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려는 무의식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울타리가 청소년이 겪는 혼란스러운 감정과 정체성 위기를 구조화하고 안전하게 표현하려는 심리적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여름과 손춘옥(2017)은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울타리를 통해 심리적 안전감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이 불안정한 애착 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즉, 청소년 내담자의 울타리 사용은 자아 정체성 형성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내면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조직화하고 안전한 심리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무의식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모래놀이치료에 나타나는 울타리 상징을 개별 사례나 상징 일반 차원에서 언급하는 데 그쳤으며, 특히 청소년기의 발달과제를 중심으로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를 심층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예컨대, 이승출과 최영진(2021)은 울타리를 경계의 상징으로 해석하였지만, 특정 연령대에 집중하거나 개성화 과정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여름과 손춘옥(2017)의 연구 또한 결손가정 청소년의 울타리 사용 경향을 언급하였으나, 분석심리학의 구조이론이나 자기(Self) 개념과의 연계는 미흡하다.

분석심리학에서 울타리는 내면의 경계 설정 과정 또는 통합되지 않은 자아 표상의 상징으로 보며(Hannah, 1971), Jung(1956a)은 자기와 자아의 통합이 지연되거나 단절되었을 때 울타리가 무의식적 어떤 것으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두는 장치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울타리를 반복적으로 만들거나 폐쇄적인 공간을 구성할 경우, 자아가 외부 세계 또는 무의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로서 울타리가 작용할 수 있으며(Boik & Goodwin, 2000), 반대로 울타리가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구성될 경우 자아가 무의식과 보다 통합된 관계를 맺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Wieland-Burston, 1992). 이는 다시 말해, 자아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경계 설정이 청소년기의 핵심 발달과제인 만큼 모래놀이치료에서 나타나는 울타리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청소년의 내면세계와 심리적 욕구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모래놀이치료에서 나타나는 울타리 상징의 의미와 기능을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다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 발달과 치료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모래놀이치료 사례의 울타리 상징을 분석하여 자아와 자기의 관계, 방어기제, 통합의 가능성 등 청소년의 내면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 모래놀이치료에서 나타나는 울타리 상징에 대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범주화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인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연구의 윤리적 책임 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주 저자는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 윤리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모든 연구 참여 청소년과 그들의 법정대리인(보호자)으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서면 동의를 획득하였다. 연구는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또한, 내담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실명 대신 가명 또는 고유 코드(예: 만 14세 남아 A, 만 12세 여아 D 등)를 사용하였고, 특정 사례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내용 편집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었으며, 엄격한 비밀 유지 원칙을 준수하였다.

문헌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및 해석하여 연구 동향과 이론적 기반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단계로 수행되었다.

첫째, 본 연구의 중심 질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래놀이치료에서 울타리 상징은 어떻게 나타나며,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어떠한 심리적 기능을 수행하는가”이다.

둘째, 관련 연구 식별을 위해 RISS, DBpia, PsycINFO, ERIC 등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모래놀이치료’, ‘청소년’, ‘상징’, ‘울타리’, ‘경계’, ‘분석심리학’, ‘sandplay therapy’, ‘adolescent’, ‘symbol’, ‘fence’, ‘boundary’, ‘analytical psychology’ 등의 핵심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검색 기간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설정하였고, 한국어 및 영어로 출판된 문헌을 포함하였다. 표 1과 같이 1차로 154편의 문헌을 선정하였고, 중복된 문헌을 제외하고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총 34편의 문헌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표 1

참고 문헌 선정 기준

단계	국내외 검색 DB	검색 시 예시	1차 검색논문	중복 제거	포함 기준 적용 후 최종선정
Search 탐색	RISS, DBpia, KISS scholar.google, PsycINFO, ERIC	청소년, 모래놀이치료, 울타리, 상징, 경계, 분석심리학 AND sandplay therapy, adolescent, symbol, fence, boundary, analytical psychology, youth	154편	120편	34편

셋째, 문헌 선택 단계에서는 다음의 포함 기준을 설정하였다: (1) 청소년(12~18세)을 주요 대상으로 한 연구, (2) 모래놀이치료 또는 상징 표현을 주요 주제로 다룬 논문, (3) 분석심리학 이론이 명시적 또는 내포되어 있는 연구, (4) 학술지 논문 및 석·박사 학위논문 모두 포함. 제외 기준은 (1) 유아 또는 성인 대상 연구, (2) 모래놀이치료와 무관한 사례 연구, (3) 상징이라는 용어는 있으나 울타리 혹은 경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이다. 문헌 선정은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였으며, 불일치 시 교신저자가 중재하여 최종 문헌을 확정하였다.

넷째, 선정된 문헌 34편에 대해서는 발행 연도, 연구 대상, 연구 방법, 분석된 상징의 특성, 분석심리학의 적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이 문헌 분석을 통해 청소년 모래놀이치료에서 나타나는 울타리 상징의 핵심적인 심리적 의미와 기능들을 귀납적으로 도출하고 범주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울타리 상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핵심 개념과 반복되는 주제들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자아의 경계 확립’, ‘자기(Self) 보호와 가치 부여’, ‘감정 통제와 의례화된 공간화’라는 세 가지 주요 분석 범주를 구축하였다. 이 세 가지 범주는 울타리가 청소년의 내면세계에서 수행하는 주요 심리적 기능을 포괄하며, 각 범주의 정의 및 포함/제외 기준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울타리 상징 분석 범주 및 기준

범주	정의	포함 기준	제외 기준	예시
경계 확립	자아와 타자 간 또는 내면 요소 구분	영역 구분, 정체성 형성 언급, 분화	단순 공간 분할	울타리를 통한 자아 경계 설정
자기 보호	외부 위협이나 내적 혼란으로부터 자아/자기 보호	방어, 안정감, 성소 기능, 취약성 보호	물리적 보호만 언급	내면 자아 보호 장치
감정 통제	감정 조절 및 내면 질서 회복	감정 분리, 의례화, 공간화, 혼돈 속의 질서 구성	일반적 감정 표현	감정의 공간적 구조화, 혼란스러운 감정 구조화

마지막으로, 위에서 도출된 분석 범주를 바탕으로 실제 청소년 모래놀이치료 사례의 울타리 상징을 분석하여 자아와 자기의 관계, 방어기제, 통합의 가능성 등 청소년의 내면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울타리의 다양한 의미와 상징적 맥락 고찰

##### 1) 물리적 구조물로서의 울타리 : 사회문화적 의미

울타리는 인류 문명 초기부터 존재해 온 기본적인 구조물로서, 단순히 공간을 나누는 실용적 도구를 넘어 정체성, 안전, 소속감, 경계를 상징하는 역할을 해왔다. 전통사회의 울타리는 나무, 돌, 흙 등 자연 재료로 제작되었으며, 집과 마을의 경계를 정의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고, 내부 구성원 간의 소속감을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예를 들어, 전통 한국 사회의 마을에서는 대나무 울타리나 흙담(토담)을 사용해 마당과 집을 둘러쌌으며, 이는 물리적 보호뿐 아니라 가족 중심 공동체라는 상징성을 전달했다. 이러한 울타리는 ‘우리’와 ‘타자’를 구분 짓는 경계로 기능하면서 신성한 질서를 표현하기도 했다. 반면, 현대 사회의 울타리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재료와 목적이 변화하였다. 철제 펜스, 아파트 단지 경계, CCTV가 설치된 출입문 등은 주로 사생활 보호, 범죄 예방, 외부인의 차단이라는 목적 아래 사용되며, 그 이면에는 고립감과 불신,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함께 작동하고 있다. 이는

Baehr(2018)가 지적하였듯, 울타리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내포한 기호적 장치’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울타리는 사회문화적으로 개인성과 집단성, 개방성과 폐쇄성, 수용과 배제를 동시에 상징하며, 인간의 심리적 경계 형성과 직결된다. 이처럼 시대와 문화에 따라 기능과 의미가 변형되면서도 공통적으로 ‘경계’를 짓는 구조물로 작동해 왔다.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경계는 단지 공간의 분할이 아니라, 자아가 무의식과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인식하기 위한 심리적 장치로 간주된다(Falk, 1974). 특히 모래놀이치료의 장면에서 울타리는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적 공간을 설정하고 통제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구획하려는 무의식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울타리의 형태, 위치, 재료 선택은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심리 상태를 반영하며, 이는 자아 경계의 탐색과 방어기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나무, 돌, 흙, 대나무 등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울타리를 제작하였다. 조선 시대의 전통 가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흙담(토담)처럼 울타리는 단순한 가축 보호나 경계의 역할을 넘어, 공동체와 가족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으로 작용하였다. 울타리는 또한 안과 밖의 질서를 나누는 의례적 공간으로 기능했으며, 이는 전통 혼례, 제사, 장례와 같은 사회적 의례 속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울타리 너머는 ‘우리’와 ‘타자’를 구분 짓는 선이자, 신성한 경계의 공간이었다.

산업화 이후 울타리는 기능과 재료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금속 펜스, 철제 울타리, CCTV가 장착된 자동문 등은 보안과 사적 소유권 강조의 상징물로 전환되었다. 현대 울타리는 개방과 공유보다는 차단과 통제를 상징하며, 이는 도시 공간에서의 소외와 불안감의 표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는 Baehr(2018)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울타리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내포한 기호적 구조물”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즉, 울타리는 ‘나의 공간’을 설정함과 동시에 ‘너의 접근’을 차단하는 선언적 장치이다.

물리적 울타리는 궁극적으로 심리적 울타리로의 전이를 가능하게 한다. 분석심리학에서 경계(Boundary)는 자아가 무의식과의 구분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방어하는 심리적 장치로 작용한다(Falk, 1974). 즉, 물리적 울타리의 이미지는 심리 내적 ‘자기 경계(self-boundary)’를 형상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이 모래 상자에서 사용하는 울타리 형태와 그 의미가 문화적, 시대적 경험에 따라 얼마나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2) 신화와 민담 속 울타리

울타리는 고대 신화와 민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징 요소로, 종종 ‘성역’ 혹은 ‘금기 구역’의 형태로 나타나며, 인간과 신, 현실과 비현실, 생과 사 사이의 전이 공간을 표시하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울타리는 통과 의례와 정체성 변화, 자기와 타자의 구분을 촉진하는 문화 심리적 상징물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장미경, 2017; Baehr, 2018). 분석심리학에서는 신화나 민담에 드러나는 공간적 경계를 무의식의 구조적 상징으로 해석하며, 이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심리적 양상과 연결된다고 보았다(송순, 2024; Jung, 1964).

한국의 고대 설화와 민담에서 울타리는 마을의 안과 밖, 신과 인간, 혹은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의 경계로 자주 나타난다. 예를 들어 단군신화에서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와 신단수 근처에 성스러운 경계를 설정하고 통치를 시작한다. 여기서 신단수 주변의 경계는 ‘성역’으로 기능하며, 이는 무의식적으로 ‘자기(self)’의 중심을 감싸는 구조물로 해석될 수 있다(장미경, 2017; 김기호, 2021). 또한 우리나라 민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호랑이 출몰을 막기 위한 담’이나, 금줄과 같은 물리적 경계는 출산·죽음 등 전환기적 순간의 의례적 공간으로 울타리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준다(홍성균청, 1995;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이는 경계가 곧 의례의 무대라는 상징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모래놀이치료의 상징 공간과도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서양의 신화나 민담에서도 울타리는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서는 성 전체를 가시덤불로 둘러싸 ‘접근 불가능한 공간’을 만들며, 이는 무의식의 봉인, 또는 ‘내면의 잠재된 자아’와의 단절을 상징한다. <잭과 콩나무>에서 거인의 세계는 뚜렷한 경계로 구분된 위계 구조를 갖고 있으며, 주인공은 이 경계를 넘나들며 개성화(individuation)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수행한다(서종수, 박성원, 2021; Drewermann, 2013). Baehr(2018)는 이러한 울타리를 “공간과 관계를 규정짓는 문화적 담론의 상징”이라고 해석하며, 사회적으로 경계의 설정은 주체와 타자, 내부와 외부의 권력관계를 시각화하는 장치라고 보았다. 이처럼 신화나 민담에서 울타리가 자주 전이(transitional) 공간의 문턱으로 나타나는 점은 모래놀이치료의 장면에서도 울타리가 ‘현실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 3)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울타리 상징

분석심리학에서는 상징을 무의식과 의식을 연결하는 매개로 본다. 상징은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다리’이며, 울타리는 특히 ‘경계’라는 개념을 대표하는 보편 원형 중 하나이다. 융(C. G. Jung)은 상징이 ‘무의식의 마음이 의식과 소통하기 위한 이미지 언어’라고 보았으며, 울타리는 자아와 타자, 자아와 그림자, 자아와 자기(Self) 간의 거리를 조율하는 주요 상징으로



해석된다(장미경, 2017; 송순, 2024). 율타리는 또한 자아가 내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로 작용하며, 억압된 감정이나 외상을 일정한 공간에 가두는 기능을 수행한다(Green & Connolly, 2009). 모래놀이치료에서 율타리는 이러한 심리 작용을 물리적으로 드러내며, 자아의 경계, 통제, 조절의 상징으로 빈번하게 나타난다(이승출, 최영진, 2021).

### (1) 자아의 경계

율타리는 심리적 독립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아의 자율적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의 과업인 '자아 경계 설정'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특히 내담자가 타인과의 경계를 과도하게 설정하거나 완전히 허무는 방식으로 율타리를 사용할 경우, 이는 자기 통합의 어려움을 상징할 수 있다(이승출, 최영진, 2021). 또한 율타리는 정체성 형성뿐 아니라 사회적 소속 경계 형성의 은유로 작동한다(이소영, 2015).

### (2) 자기 보호와 방어기제

율타리는 감정적 통제와 심리적 방어의 장치로도 작용한다. 분석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의 억압된 감정이나 위협적인 기억이 의식에 접근할 때 자아가 위협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징적 구조물을 활용한 방어기제가 작동한다고 보았다. Jung(1964)은 상징이 자아와 무의식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매개체로서 단순한 표현을 넘어서 자아를 보호하고 무의식의 에너지를 전환하여 통합을 촉진하는 심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 모래놀이 치료 장면에서 율타리는 이러한 상징적 방어기제가 구체적으로 시각화되는 형태로 자주 나타난다. 내담자는 율타리를 사용하여 위협적 정서나 감정을 외부로부터 차단하거나 율타리 내부에 은유적으로 '격리'함으로써, 자아의 안정성과 통제감을 회복하려는 무의식적 시도를 드러낸다. 또한 청소년 내담자가 모래 상자에서 율타리를 배치하는 행위는 외부 세계와의 혼란스러운 감정적 상호작용을 차단하고, 자기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김진, 성나경, 2023). 방어기제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율타리 상징은 억제, 부정, 회피 등의 전형적인 방어기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자아가 통합되지 않은 감정이나 외상적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으로 작용한다(Cramer & Cramer, 1991). 따라서 율타리는 모래놀이치료 맥락에서 단지 공간을 구획하는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자아의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고 무의식적 위협에 대한 방어기제로 기능하는 복합적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 (3) 공간화된 상징 체계와 의례적 구조

모래 상자에서 율타리는 자아의 정체성뿐 아니라 '심리적 공간의 정돈'을 위한 의례적 구조물로 기능한다. 이는 장미경(2017)이 언급한 '모래 상자의 연금술적 공간' 개념과 연결되며,

울타리는 이 공간 안에서 상징적 분류, 구획, 전환을 가능케 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 위기에서, 울타리는 안전과 경계, 자율성과 고립의 이중 상징으로 나타나며, 이는 내담자의 상징 선택과 구성 방식에 따라 그 의미가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 2. 청소년 모래놀이치료 사례 분석 : 울타리 상징의 심리적 기능

본 연구에서는 총 8명의 청소년 사례의 모래상자 12개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울타리의 상징을 분석심리학의 이론적 틀 안에서 해석하였다. 연구자는 울타리가 무의식 세계에서 상징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자아의 상태와 발달과제를 반영하는 매개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울타리 상징을 자아의 경계 확립, 자기(Self) 보호와 가치 부여, 감정 통제와 의례화된 공간화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이를 사례에 기반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아래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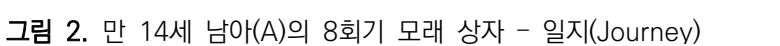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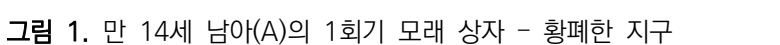
표 3

내담자 사례별 정보

순서	성별	연령	의뢰 사유	분석 회기	울타리의 범주
A	남	12	학업 소홀 및 부모와의 갈등	1, 8	
B	남	14	또래 관계 어려움	1	자아의 경계 확립
C	남	12	또래 관계 어려움 및 등교 거부	16	
D	여	15	또래 관계 어려움	2, 8	자기(Self) 보호와
E	남	12	부와의 지속적 갈등	6	가치 부여
F	여	15	공격적인 행동과 언어 표현	1 (두 개의 상자)	감정 통제와
G	남	12	또래 관계 어려움	9	의례화된 공간화
H	남	13	모와의 갈등 상황에서 물리적 위협을 가함	12	

### 1) 자아의 경계 확립: 혼돈 속의 중심을 찾다

자아의 경계 설정은 청소년기 개성화 과정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다. 분석심리학에서는 자아(Ego)가 무의식과 구분되며, 세계와 자신 사이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경계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시설 청소년들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처음에는 억압적으로 느껴지던 공간을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재인식하고 통제와 보호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아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홍혜교, 2022). 울타리는 그러한 심리적 경계를 외현화하는 상징으로 기능한다.



바라볼 수만 있다. 울타리 외에도 집과 개들을 보호하고 있는 수풀로 이루어진 경계는 단순한 방어기제 그 이상으로, 자아가 혼돈 속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무의식의 언어로 기능한다. Falk(1974)가 설명한 바와 같이, “경계는 자아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표현이며, 위협적 내적 요소를 외부화하는 상징”으로 보여진다. 모래 상자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만 14세 남아(B)의 1회기 모래 상자 - 진화

한편, 그림 4에 모래상자를 제시한 만 12세 남아(C)는 의뢰 당시 초등학교 6학년으로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등교 거부가 나타나 의뢰되었다. 그는 가정과 학교의 모습 중 어느 것이 ‘진짜 자신의 모습’인지 혼란스러워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모습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오해를 사고 따돌림을 받게 되었으나 내면의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한 상태로 16회기에서는 수풀을 이용해 울타리를 구현하였다. 수풀은 자연물이며 유기적인 경계로써, 보다 유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자아의 경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심리를 드러낸다(Keulartz, 2007). 이는 그가 혼란스럽게 여겼던 자아의 심리적 영역을 분리하고 있으며 이들과 외부 사이에 가변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만의 내면의 질서를 마련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Jung(1960)에 따르면, 이러한 울타리의 출현은 자아가 자기 안의 다양한 자원을 구분하고 조절하며 정립되어 가는 과정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 만 12세 남아(C)의 16회기 모래 상자 - 마을



## 2) 자기(Self) 보호와 가치 부여: 신성한 힘의 보호

분석심리학에서 '자기(Self)'는 인간 존재의 중심이자 전체성의 상징이다. 청소년기에는 자기가 자각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취약한 자아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 학대 외상 아동이 울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감정적 안전을 도모하는데, 이때 울타리는 보호된 치유 공간을 형성하며, 무의식적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재경험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이여름, 이세화, 장미경, 이선화, 2024). 청소년에게 울타리는 자신의 중심을 보호하고, 무의식적으로 그 가치를 부여하려는 상징 행위로 나타난다.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만 15세 여아(D)의 2회기에서 예수상이 간혀있는 울타리인 새장은 예수의 희생적인 면모를 이야기하면서도 타인에게 기억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보여준다. 자기(Self)의 상징인 예수상이 새장 안에 갇힌 형태로 표현된 것은, 자기 보호 및 억압된 자기 가치를 의미할 수 있다. 자아가 내면의 중심(Self)을 외부 자극이나 정서적 위협으로부터 구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무의식적 시도로 해석된다. Green과 Connolly(2009)는 모래놀이치료에서 울타리의 사용이 자아의 취약성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차단하려는 무의식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아가 자기의 중심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접촉에는 두려움이 있거나, 아직 심층적 통합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내면의 신성한 자아, 즉 자기(Self)를 안전한 심리적 성소 안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상징화된 의식 구조로 이해된다. 이 사례의 모래 상자는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그림 5. 만 15세 여아(D)의 2회기 모래 상자 - 갈레

동일한 내담자(D)의 8회기는 다음 그림 6과 같으며, 울타리가 위험한 화산을 보호하는 용도로 배치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고, 경찰은 밖에서 보고 있다. 화산은 감정의 폭발, 억제된 분노 혹은 억눌린 욕망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울타리로 둘러싼 행위는 자아가 무의식적 감정의 범람을 통제하려는 방어로 보여진다(Jung, 1956a). 동시에 울타리는 단절이 아니라 성스러운 공간의 보호 장치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내부의 감정 에너지를

소중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 부여의 상징이기도 하다. 법을 지키는 경찰은 내담자 내면의 초자아일 수 있으며 감정의 화산이 범람하지 못하게 감시하며 그와 반대로 화산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억눌려진 감정에 접촉하려고 하는 자기(Self)일 가능성을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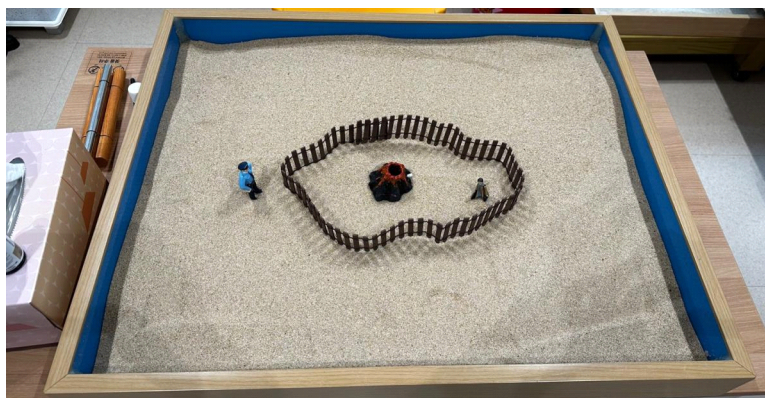


그림 6. 만 15세 여아(D)의 8회기 모래 상자 - 청개구리

그림 7을 보면, 또 다른 만 12세 남아(E)의 6회기에서는 모아이 석상을 구경하는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로서 누운 형태의 울타리가 배치되었으며, 파랑새가 울타리 밖을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모아이 석상은 집단 무의식 속 자기(Self)의 상징적 이미지로서, 신성함, 정체성의 표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Jung, 1956b). 파랑새는 종종 이상, 정신적 성장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자기와 자아 사이의 접근을 조율하는 심리적 기제로 해석된다(Weinrib, 2004). 이는 자기의 신성함을 보호하고 동시에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가 아직 심층적 자기와 완전히 접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울타리가 누워 있다는 점은 의식적 경계 설정보다는 상징적 구분으로서 자아가 자기의 상징으로 접근하기 위한 심리적 전이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해석되며, 그가 무의식적으로 자기와의 조우를 준비하는 의례적 단계에 진입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7. 만 12세 남아(E)의 6회기 모래 상자 - 여행

이러한 울타리는 단순한 차단물이 아닌, 자기(Self)의 상징을 보존하고 감싸는 ‘성소(sanctuary)’의 역할을 수행한다. Jung(1960)은 자기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종종 종교적·의례적 장치가 등장한다고 보았으며, 위 사례들은 청소년이 자기 개념의 핵심을 상징적으로 구조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 3) 감정 통제와 의례화된 공간화: 내면 질서의 복원

치료 초기의 모래 상자는 종종 감정의 혼란을 반영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무의식적으로 울타리를 활용하여 혼돈 속의 질서를 회복하고, 심리적 의례화를 통해 통제를 모색한다. 이는 ‘무의식의 정돈’이자 ‘감정의 공간화’로 해석될 수 있다(장미경, 2017).

만 15세 여아(F)은 공격적인 행동과 언어로 의뢰되었는데, 1회기에서 첫 번째 상자에 “나무에 더 집중하기 위해 울타리를 둔다”는 표현과 두 번째 상자에 “강아지들끼리만 놀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친다”고 표현했다. 이 울타리들은 관계로부터의 거리 조정, 즉 대인관계에 있어 과잉 자극을 차단하고 자기만의 심리적 공간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의례적 전이 공간”, 즉 자기(Self)와 감정 사이를 조율하는 의식적 전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Jung, 1960). 특히 ‘강아지들끼리’ 혹은 ‘나무만’이라는 표현은 애착 대상의 제한, 타자와의 관계 회피 또는 선택적 관계 맺기 성향을 반영한다. 두 번째 상자의 울타리는 감정적 애착 대상(동물)과 현실 자아(사람)를 구분하는 강력한 심리적 경계로 작용하고 있다. 감정의 투사 대상과 자아 간의 분리 시도, 즉 “감정의 공간화”를 통한 통제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Hillman, 1975). 본 내담자의 두 모래 상자는 그림 8과 그림 9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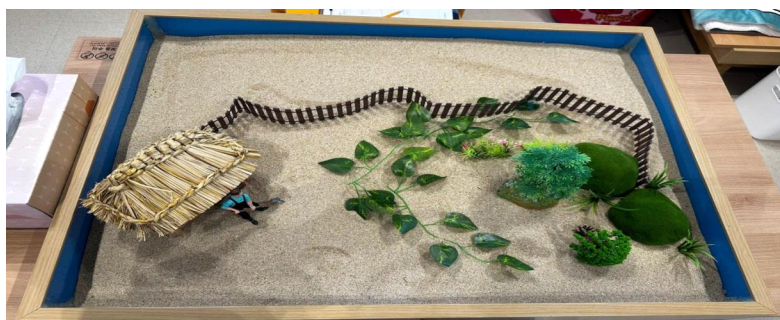


그림 8. 만 15세 여아(F)의 1회기 첫 번째 모래 상자 -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그림 9. 만 15세 여아(F)의 1회기 두 번째 모래 상자 - 평범한 일상

이와 유사하게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 12세 남아(G)의 9회기 그림 10에서는 울타리를 통해 “보물과 유적”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중요한 심리적 자산, 즉 내면의 소중한 감정이나 기억을 외부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감정 통제를 상징할 수 있다. 동시에 보물이라는 표현은 무의식적으로 중요한 내적 요소에 대한 의미 부여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내부 상징물은 감정적 핵심, 또는 자기(Self)의 구성 요소로 해석되며, 그것들을 보존하고 구성하는 공간은 ‘성소(sanctuary)’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Weinrib, 2004). 이 상자의 울타리는 흰색으로 감정의 의례적 정돈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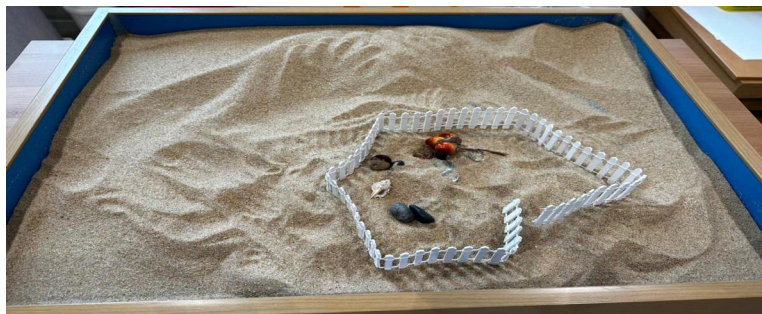


그림 10. 만 12세 남아(G)의 9회기 모래 상자 - 유적의 비밀

마지막으로 만 13세 남아(H)의 모래 상자를 살펴보면, 그림 11에 제시한 12회기에서는 화산 위에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한” 황금용이 등장하였으며, 상단과 하단으로 동물과 파충류 울타리가 배치되었다. 선과 악의 공존은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자기의 양가성(ambivalence)’에 관한 표현으로, Jung(1979)은 진정한 자기(self)가 선과 악, 의식과 무의식, 즉 대극을 모두 포함하며 이를 통합한 전체성(complexio oppositorum)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이는 아동이 내면의 이중적 속성을 인식하고 이를 의례화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면 세계를 정돈하고 회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상단의 파충류 울타리와 하단의 독수리 울타리는 각각 본능, 자기의 무의식적 요소와 초월적 자아, 자기(Self)와의 연결을 상징하며(Jung, 1956a), 상단과 하단의 구분은 감정



과 본능의 분리 및 통제를 시도함과 동시에 이러한 내면의 움직임에 더 높은 의식 수준에서 정돈하려는 자기 통합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다음 회기에서 상단의 울타리를 해체하고 독수리와 뱀을 연결하여 하단의 경계를 만드는 구조적 변화를 나타냈으며, 이는 그림 12와 같다. 13회기 상자에 나타난 울타리의 구조는 그가 이전 회기의 통제적이고 구조화된 시도에서 벗어나 보다 혼란스럽고 방어적인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분석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실현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혼돈과 붕괴의 시기’와 유사한 상징 구조이며(Jung, 1960),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가능성 또는 이전의 구조를 해체하면서 더 깊은 자기 탐색과 재조정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1. 만 13세 남아(H)의 12회기 - 황금용



그림 12. 만 13세 남아(H)의 13회기 - 제목 없음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기 모래상자에서 나타난 울타리 상징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를 넘어, 내담자의 심리적 공간을 구획하고 내면의 혼란을 정돈하며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울타리가 청소년 모래놀이치료에서 자아의 경계 확립, 자기(Self) 보호와 가치 부여, 감정 통제와 의례화된 공간화라는 세 가지 주요 심리적 기능으로 나타남을 실제 사례를 통해 규명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이승출, 최영진, 2021)에서 제시된 울타리의 기능(경계, 보호, 분리)과도 연결되나, 본 연구는 청소년

기의 특수성과 실제 사례에 기반하여 자아-자기(Self) 구조화 과정을 보다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독창성을 지닌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심리학적 해석과 임상적 의의는 다음 논의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울타리’ 상징의 의미를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울타리 상징이 청소년의 심리 발달 및 정체성 구조화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울타리가 자아와 자기(Self), 감정, 무의식과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핵심 상징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울타리는 청소년 자아의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는 상징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혼란스럽고 위협적인 내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래상자 안에 울타리를 배치하였으며, 이는 자아(Ego)가 무의식과 외부 세계 사이의 경계를 구축하고 통제하려는 상징적 시도로 해석된다(Falk, 1974; Jung, 1956b). 자아의 이러한 경계 설정은 분석심리학에서 개성화(individuation) 과정의 초기 단계로 간주되며, 청소년기 정체성 확립의 핵심 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둘째, 울타리는 모래상자에서 자기(Self)가 상징으로 나타나면 보호하고 감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심리적 장치로 기능하였다. 예수상, 황금용, 보물 등의 중심 상징을 울타리로 감싸는 구성은 자아가 자기(Self)의 신성성과 감정 자원을 무의식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며, 이는 Jung(1960)이 제시한 자기와의 만남을 위한 ‘성소(sanctuary)’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상징적 행위는 청소년이 자기 개념을 구조화하고 자기 통합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심리 역동을 보여준다.

셋째, 울타리는 감정의 통제와 대인관계 조절의 상징으로 작동하였다. 일부 사례에서는 울타리를 통해 특정 인물(예: 동물 피겨)을 타인으로부터 구획하거나, 자아와 감정 사이의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감정적 자극을 통제하고 내면의 질서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관찰되었다. 이는 울타리가 단순한 방어기제를 넘어 감정의 공간화를 매개하는 치료적 장치로 기능함을 시사한다(Hillman, 1975; Cramer, 1991).

넷째, 위의 세 가지 울타리 상징 기능(자아의 경계 확립, 자기 보호와 가치 부여, 감정 통제)은 궁극적으로 청소년 내담자의 자기 통합(Self integration) 과정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심리

역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내담자 중 일부는 초기 회기에서 율타리를 폐쇄적으로 구성하였으나, 이후 회기에서는 이를 해체하거나 보다 유동적인 방식으로 재배치하며 자아와 무의식의 상호작용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Jung(1960)이 제시한 자기실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혼돈과 붕괴의 시기’를 상징적으로 반영하며, 더 깊은 자기 탐색과 통합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심리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율타리가 이러한 변화를 매개하는 것은 청소년이 내면의 대극적 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통합하려는 시도이자, 건강한 자기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의미한다. 즉, 율타리는 단순한 방어기제를 넘어 자기 통합을 향한 상징적 전환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발달 특수성을 반영한 실제 모래상자 사례를 바탕으로 율타리 상징의 치료적 함의를 분석심리학 이론과 접목하여 구조화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임상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율타리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심리적 경계 설정, 자기 보호, 감정 통제, 자기 통합의 상징으로 기능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내담자의 심리 상태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석 틀을 제공하였다. 이는 모래놀이치료에서 상징 분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치료사의 임상적 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의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본 연구는 사례의 수가 제한적이므로 율타리 상징의 사용 경향성을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연령, 성별, 심리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량적 분석과 형태학적 율타리 분석(재료, 배치 형태, 공간 점유율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율타리가 모래 상자 안에서 어떤 피규어나 주제와 함께 사용되는지, 즉 상징 간의 관계망 분석(symbolic constellation)이 이뤄진다면 율타리의 복합적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율타리가 신성한 존재, 공격성, 죽음 등을 둘러싸는 방식은 그 의미를 변화시키며, 이는 무의식적 갈등 구조를 탐색하는 실마리가 된다. 또한 단일 내담자에게서 율타리 상징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경우, 그 형태나 위치, 관련 주제가 변화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내담자의 심리적 통합 여부나 변화 과정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박성원, 서종수, 전재민, 2022).

마지막으로, 분석심리학 외에도 인지 행동적 관점이나 애착 이론을 접목시켜 청소년 내담자의 율타리 상징에 대한 다차원적 해석을 시도할 경우, 보다 풍부한 심리적 맥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모래놀이치료가 융합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김기호 (2021). 단군신화 신단수(神壇樹)와 생태적 숭고 미. **문화와융합**, 43(5), 767-787.
- 김인옥, 이경하 (2012). 모래상자놀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우울 감소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 연구**, 16(1), 51-66.
- 박성원, 서종수, 전재민 (2022). 청소년 모래놀이치료에 관한 연구 동향. **청소년상담학회지**, 3(2), 85-102. doi:10.51613/JKYCA.2022.3.2.85
- 서종수, 박성원 (2021). 분석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잠자는 숲속의 공주”. **청소년상담학회지**, 2(3), 5-21. doi:10.51613/JKYCA.2021.2.3.5
- 김진, 성나경 (2023).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모래놀이치료에 대한 탐색적 연구: 2010년 이후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14(3), 1-42. doi:10.12964/jsst.23009
- 송순 (2024). 모래상자상담에서 원형과 상징. **모래상자치료연구**, 14(1), 1-20.
- 오진숙, 김한중, 하요상 (2019). 모래놀이 치료가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 사례 연구. **학교 상담과 모래놀이**, 1(1), 15-30.
- 이승철, 최영진 (2021). ‘울타리’ 상징에 대한 연구. **모래놀이상담연구**, 17(1), 61-84.
- 이여름, 손춘옥 (2017). 중국 연변 거주 조선족 결혼가정 청소년의 모래놀이치료 주제 및 상징연구. **상징과 모래놀이**, 8(1), 67-80.
- 이여름, 이세화, 장미경, 이선화 (2024). 성학대 외상 아동, 청소년의 모래놀이치료 상징 주제 연구.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15(2), 137-178. doi:10.12964/jsst.24009
- 이소영 (2015). 우리를 가르치는 울타리, ‘우리’라는 울타리: 미국 청소년 역사책 『디어 아메리카』 시리즈에서 배제/포섭의 서사. **역사문제연구**, 33, 465-509.
- 장미경 (2017).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서울: 학지사.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경기 지역의 전통 의생활**.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 홍성균청 (1995). **홍성군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군청.
- 홍혜교 (2022). 시설 청소년들의 문화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71, 121-139. doi:10.17854/ffyc.2022.07.71.121
- 최지원, 박윤미 (2021). 청소년 미술치료의 국내외 연구 동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7(1), 337-364. doi:10.32451/KJOAPS.2021.17.1.337
- Baehr, V. (2018). *Fences: Physical and Socio-Cultural Boundaries*.
- Boik, B. L., & Goodwin, E. A. (2000). *Sandplay therapy: A step-by-step manual for psychotherapists of diverse orientations*. 모래놀이치료: 심리치료사를 위한 지침서 (이진숙, 심희옥, 한유진 역.). 서울: 학지사.

- Cramer, P., & Cramer, P. (1991). The defense mechanism manual. *The Development of Defense Mechanisms: Theory, Research, and Assessment*, 215-234.
- Drewermann, E. (2013). *(Die)kluge else repunzel*. 어른을 위한 그림 동화 심리 읽기 (김태희 역). 서울: 교양인.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alk, A. (1974). Border symbolism. *The Psychoanalytic Quarterly*, 43(4), 650-660. doi:10.1080/21674086.1974.11926691
- Green, E. J., & Connolly, M. E. (2009). Jungian family sandplay with bereaved children: Implications for play therapists.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18(2), 84-98. doi:10.1037/a0014435
- Hannah, B. (1971). *Striving toward wholeness*. Boston: Sigo Press.
- Hillman, J. (1975). *Re-Visioning Psychology*. New York: Harper & Row.
- Kalff, D. M. (2003). *sandplay: A psychotherapeutic approach to the psyche*. Santa Monica: Temenos Press.
- Keulartz, J. (2007). Using metaphors in restoring nature. *Nature and Culture*, 2(1), 27-49. doi:10.3167/nc.2007.020103
- Jung, C. G. (1956a). *Aion: Researches into the phenomenology of the Self*. New York: Pantheon Books.
- Jung, C. G. (1956b). *Symbols of transformation* (2002). **상징과 리비도** (김형섭 역). 서울: 집문당. (원저 1956 출판)
- Jung, C. G. (1960). *The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Psyche*. New York: Pantheon Books.
- Jung, C. G. (1964). *Man and His Symbols*. London: Aldus Books.
- Jung, C. G. (1979). Aion: Researches into the phenomenology of the self(R. F. C. Hull, Tra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51)
- Weinrib, E. L. (2004). *Images of the self: The sandplay therapy process*(Vol. 2). Sandplay Classics.
- Wieland-Burston, J. (1992). *Chaos and order in the world of the psyche*. Psychology Press. London: Routledge.

## ABSTRACT

### The symbolism of fences in adolescent sandplay therapy: A jungian analytical perspective

Moon, Jooyoun\* · Lee, Jiyeon\*\* · Han, Youji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ymbolic meaning of the “fence” as it appears in adolescent sandplay therapy, from a Jungian analytical perspective. It explores how the fence functions in supporting ego identity, emotional regulation, and Self integration during adolescence. Given adolescents’ developmental challenges in verbal expression and ego boundary formation, symbolic, nonverbal expression serves as a key therapeutic medium.

The study reviewed the relevant literature and analyzed 12 sandtrays created by 8 adolescents. Fence symbols were classified into three main functions: (1) establishing ego boundaries, (2) protecting and valuing the Self, and (3) regulating emotions through ritualized spatial structure. These symbolic functions align with Jungian concepts of ego-unconscious interaction and individuation. By offering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fence as a symbol, this study highlights its relevance to adolescent development and sandplay therapy.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fence acts as a protective and organizing symbol within the inner world, helping adolescents manage emotional chaos and define personal space.

**Key Words:** adolescent, sandplay therapy, analytical psychology, symbol, fence

---

\* Myongji University, Ph.D. Candidate (ABD) in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 Myongji University, Ph.D. Candidate (ABD) in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 Myongji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